

전영오픈 우승... 셔틀콕 '안세영 시대' 열렸다

결승서 천적 천위페이 2-1 제압
방수현 이후 27년만 女단식 1위
"커리어 한 획 그어 자랑스럽다"
김소영-공희용은 女 복식 제패
한국 배드민턴 금 2·은 2 수확

광주체고 출신의 '한국 여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간판' 안세영(21)이 세계 최고 권위의 전영오픈 여자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로는 27년 만이다.

세계 랭킹 2위 안세영은 지난 19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3 전영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4위 천위페이(중국)를 2-1(21-17 10-21 21-19)로 이겼다.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에 그쳤던 안세영은 1년 만의 재도전 끝에 우승에 성공, 한국 선수로는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전영오픈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1899년에 시작된 전영오픈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가운데 최상위권인 1000 대회다.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를 자랑한다.

한국은 전영오픈 여자 단식에서 1981년 황선애, 1986년 김연자, 1996년 방수현이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결승에서 '천적' 천위페이를 꺾으며 한국 선수 역대 5번째 전영오픈 여자 단식 우승 꿈을 이뤘다.

또 올해 출전한 BWF 월드투어 5개 대회에서 모두 결승에 진출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따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안세영이 지난 19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3 전영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천위페이(중국)를 2-1로 꺾고 우승한 후 포효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안세영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신화/뉴시스

안세영은 이번 우승으로 2023 BWF 여자 단식 랭킹 1위로 올라섰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2번 시드를 받아 16강전에서 세계 28위 바이우포(대만)를 29분 만에 2-0(21-2 21-7)으로 완파한 뒤 8강에서 세계 7위 캐롤리나 마린(스페인)에게 기권승, 준결승서 세계 3위 다이쯔잉(대만)과 치열한 접전 끝에 2-1(17-21 21-19 24-22)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안세영은 결승에서 '천적' 천위페이를 만났다. 안세영은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천위페이에게 상대 전적에서 2승 8패로 밀렸다.

하지만 이날 결승에선 한층 성장한 기량을 과시하며 천위페이를 압도했다.

안세영은 1세트 초반 연속 득점하며 5-1로 앞서 나갔다. 천위페이도 만만찮았다. 천위페이는 코트를 넓게 쓰면서 점수를 쌓아 11-11 동점을 만들었다. 집중력

을 가다듬은 안세영은 장점인 그물망 수비로 상대 범실을 유도하며 다시 앞서 나갔고, 18-17에선 절묘한 헤어핀으로 승기를 잡았다. 이후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21-17로 기선을 제압했다.

2세트는 천위페이에게 내줬다. 세트 초반 실수를 연발하며 1-5로 뒤졌다. 허를 찌르는 드롭샷을 앞세워 7-8로 추격했지만 결정적인 득점 기회에서 스매싱 실수로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10-21로 크게

졌다. 안세영은 마지막 3세트 들어 다시 집중력을 발휘했다. 절묘한 헤어핀이 살아나면서 5-1로 앞서 나갔다. 천위페이도 물러서지 않고 추격에 나서 5-6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안세영은 과감한 푸시와 공격으로 연속 득점을 올려 11-7까지 앞서 나갔다.

천위페이가 다시 추격의 고삐를 당기면서 20-19 턱밑까지 쫓아왔지만 안세영은 랠리 도중 과감한 공격으로 마지막 포인트를 따내고 우승 세리머니를 펼쳤다.

안세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제 커리어에 한 획이 그어졌다.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 또 한 단계 성장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우승이) 믿기지 않는다. 멋진 체육관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앞서 열린 여자복식 결승전에선 세계 6위 김소영(31)-공희용(27) 조는 세계 12위 이소희(29)-백하나(23) 조를 2-0(21-5 21-12)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도쿄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김소영-공희용 조는 2017년 장예나-이소희 이후 6년 만에 이 대회 여자복식 정상에 등극했다. 혼합 복식 세계 9위 서승재(26)-채유정(28) 조는 결승에서 '혼북 최강'인 세계 1위 정쓰웨이-황야중(중국) 조에 1-2(16-21 21-16 12-21)로 석패하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한국은 이번 전영오픈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 동구청 복싱, 대한복싱협회장배 '은빛 펀치'

-57kg급 이행석·-60kg급 김호섭

광주 동구청 복싱이 올시즌 첫 전국대회인 2023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중별복싱대회에서 은빛 펀치를 날리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신명훈 감독이 이끄는 광주 동구청 복싱단은 지난 11-15일 경남 김해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행석(23)이 남자일반부 -57kg급 결승에서 김원호(경주시청)에게 1-4 판정패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호섭(30)도 남자일반부 -70kg급 결승에서 현동주(보령시청)에게 ABD(수건 기권) 패를 당

하며 은메달에 그쳤다.

신명훈 감독은 "올해 출전하게 될 6년의 경기 중 첫 시작이 좋아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며 "동구복싱단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복싱협회와 광주시체육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광주 동구청에 감사드리며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24년 만에 재창단된 동구복싱단은 출범 1년 만에 단일 전국대회 전원 메달 획득이라는 성적을 거둔 이래 최근까지 금메달 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며 광주 복싱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전남도청 최세빈, 벨기에 女 사브르 월드컵 단체전 우승

전남도청 펜싱 사브르 최세빈(사진)이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월드컵 여자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 국제대회 4연속 입상 성적을 거뒀다.

최세빈은 20일(한국시간) 벨기에 신트니클라스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전은혜(인천중구청)·이한아(한국체대)·윤소연(대전시청)과 팀을 이뤄 출전해 금메달을 합작했다.

세계 2위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전 세계 16위 카자흐스탄(45-37승), 8강전 세계 9위 불가리아(45-39승), 4강전 세계 3위 헝가리(45-44승)를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선 '펜싱 강호' 세계 4위 이탈리아를 상대로 45-42로 이겨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한국의 이번 우승은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으로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출전해 이룬 성과로, 한국 펜싱의 두터운 선수층을 증명하는 대회였다.

최세빈은 지난해 11월 알제리 월드컵 동메달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월드컵 동메달, 지난 3월 아테네 월드컵 은메달에 이어 이번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월드컵 금메달을 획득하며 4연속 국제대회 입상 쾌거를 거뒀다.

최동환 기자

KIA 손 앤더슨, 시범경기 두번째 등판 호투

5.1이닝 3피안타 3사사구 1실점
좌완 불펜진 릴레이 무실점 투구
LG에 3-1 승리... 4승 1무 2패



KIA타이거즈 새 외국인 투수 손 앤더슨(29)이 시범경기 두번째 등판에서 호투를 펼치며 개막전 선발로 기대감을 키웠다.

앤더슨은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2023 KBO 리그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5.1이닝 3피안타 3사사구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앤더슨은 22명의 타자를 상대해 총 67개의 공을 던지고 팀이 2-0으로 앞선 6회 초 1사 1루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앤더슨은 최고 151km의 직구(43개)와 슬라이더(9개), 커브(7개), 체인지업(6개), 투심(2개) 등 5개 구종을 구사하며 LG 타선을 요리했다.

2회 위기 상황에서 폭투로 1점을 내준 게 '육의 티'였지만 공격적인 피칭과 위기 관리능력이 돋보였다.

앤더슨은 1회초를 삼자범퇴로 마무리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 2회초엔 1사 후 문보경에게 볼넷을 내준 뒤 박동원에게 우중간 안타를 맞아 1사 1-3루 위기를 맞았다. 서건창 타석 때 폭투로 1실점한 앤더슨은 후속타자를 범타 처리했다.

앤더슨은 3회초 선두 홈창기를 몸에 맞는 볼로 출루시켰지만 이후 세 타자를 외야 뜬공, 내야 땅볼, 내야 뜬공으로 막았



KIA 선발 손 앤더슨(왼쪽)이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2023 KBO리그 시범경기에서 2회초 LG 오지환의 1루수 땅볼 때 1루 커버를 들어가 1루수 변우혁의 송구를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다.

4회초와 5회초에도 출루를 허용했지만 실점없이 마무리했고, 6회초 1사 후 오지환에게 볼넷을 내준 뒤 마운드를 이준영에게 넘겼다.

앤더슨은 시범경기 첫 등판인 지난 15일 키움전에서 3.2이닝 2피안타 3볼넷 1탈삼진 2실점(비자책)을 기록했던 투구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개막전 선발을 기대케 했다.

KIA는 이날 선발 앤더슨을 비롯한 투수들의 호투에 힘입어 3-1 승리를 거두고 시범경기 4승 1무 2패를 기록했다.

5번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한 변우혁이 3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맹활약했다. 2번 지명타자 고종욱과 9번 유격수 김규성

도 멀티안타로 힘을 보탤다.

KIA는 1회말 류지혁의 몸에 맞는 볼과 고종욱의 2루타로 무사 2-3루를 만들었고 최형우가 포수 땅볼로 물러났지만 소크라테스가 2루수 땅볼을 때려 3루 주자 류지혁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계속된 2사 3루에서는 변우혁이 1타점 좌전적시타를 날려 2-0으로 달아났다.

KIA는 8회말 2사 3루에서 김호령의 1타점 중전적시타로 1점을 추가, 3-0으로 달아났다.

선발 앤더슨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이준영(0.2이닝)-김기훈(1이닝)-김대유(1이닝)-최지민(1이닝) 등 좌완 불펜투수들은 모두 무실점 방어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한규빈 기자